

# 잠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 I. 일반개황

면적	743천 km <sup>2</sup>	G D P	205억 달러 ('12)
인구	1,430만 명 ('12)	1인당 GDP	1,474 달러 ('12)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Zambian Kwacha (ZK)
대외정책	친중국, 주변국 협력강화	환율(달러당)	5.15

- 아프리카 남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잠비아는 한반도의 3.4배에 달하는 국토와 1,43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등과 국경을 접함.
- 구리(매장량 세계 11위),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 등의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구리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외국인투자 유입, 구리 생산량 증대, 인프라 투자 증가, 서비스 및 제조업 성장을 기반으로 연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HIPC(고채무저소득국) 완료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규모 채무 탕감과 리스케줄링을 거쳤으며 이후 외채 관련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 2011년에는 World Bank 기준 중하위소득국으로 상향 분류되었으며, 2012년에는 7.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개선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최근 연 6~7%의 경제 성장세 지속

○ 잠비아 경제는 상품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리의 국제가격이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가파른 하락세에서 회복됨에 따라 2009년 6.4%의 성장률을 기록함. 이후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 광업 부문 FDI 유입 확대, 건설업·농업·서비스업의 호황으로 2010년 7.6%, 2011년 6.8%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FDI 유입규모(억 달러) : 7.0('09) → 17.3('10) → 11.1('11) → 10.7('12)

- 구리의 국제가격(ton/USD): 7,126.5('07) → 6,951.5('08) → 5,163.6('09) → 7,539.3('10) → 8,810.9('11) → 7,949.7('12)

○ 2012년에는 옥수수와 구리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에 힘입어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인프라 및 광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지속, 옥수수와 구리 생산량 회복, 소비 확대에 힘입어 7.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잠비아 정부는 2012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7.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함.

- 2013년 중 최저임금 15% 인상 및 가계와 소규모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소비 진작이 기대됨.

#### □ 한 자리 수의 양호한 소비자물가상승률

○ 식료품의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53%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간 한 자리 수를 유지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부문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

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국제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확대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잠비아의 재정수지는 각종 보조금 지급,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4.5%를 기록하였음.

○ 잠비아 정부는 2013년 유류 및 비료 보조금을 철폐하였으나 소득세 적용 소득액 상향 조정, 일부 자본채에 대한 세금 감면, 2013년 9월부터 적용 예정인 공공부문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제성장률	6.4	7.6	6.8	7.3	7.8
재정수지 / GDP	-2.5	-3.0	-2.2	-4.5	-4.6
소비자물가상승률	13.4	8.5	8.7	6.6	6.5

자료: IMF.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잠비아의 광업은 구리 및 코발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물 수출이 잠비아 외환소득의 약 60%, 상품수출의 70%를 차지함. 광업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광물 시세,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 변동에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광업은 잠비아 GDP의 10~15%, 고용의 10%만을 차지하나 관련 건설이 GDP의 26%(2012년)를 차지하는 등 관련 서비스 및 투자 고려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

○ 잠비아는 1970년대 초 광산 국유화 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75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였으나 국유화 이후 생산량이 감소해 2000년 생산량은 26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광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리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량이 회복돼 2005년 44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함. 신흥 시장의 수요 증대로 구리 생산량은 지속 증가하여 2012년에는 82만 톤을 생산(세계 7위)한 것으로 추정됨.

**□ 열악한 전력, 도로 등 인프라로 인해 취약한 성장기반**

○ 구리 광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고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 도로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잠비아는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고, 국내 전력수요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은행의 2013년도 기업 환경평가(Doing Business) 전력수급 부문에서 185개국 가운데 151위를 기록하는 등 원활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잠비아의 구리 매장량은 1,900만 톤으로 세계 9위 규모이며 생산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신흥국의 산업용 광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구리 광산 개발 및 생산이 활발하여 중국의 국영 광업기업인 CNMC의 대 잠비아 투자액이 2012년 말 기준으로 20억 달러에 달함.

- 광산이 민영화된 2000년 이후 약 80억 달러가 광산 현대화, 탐사·개발, 노동자 교육을 위해 투자되었음.

-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잠재적인 광산 지대의 58% 수준으로, 광물 자원의 추가적인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Konkola 광산

부근에서 새로운 구리 광산이 발견되는 등, 신규 개발투자가 확대될 경우 향후 40년 이상 지속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제철에 사용되는 코발트도 27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계 4위 규모이며, 영국의 자원개발기업 Vedanta Resources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의 발전 잠재력**

○ 농업은 잠비아 GDP의 20.4%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인구의 약 68%가 종사하는 주요 산업으로, 방대한 경작면적, 비옥한 토양 및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해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임. 잠비아는 현재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

- 잠비아 정부는 2005년 6월 발표한 10개년 농업개발정책에 따라 면화, 담배, 설탕 등 현금성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곡물 저장시설 및 도로·교량 확충 사업, 관개시설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임.

**다. 정책성과**

**□ 도로,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2003년부터 World Bank 등의 일부 지원을 받아 10개년 도로개발계획인 ROADSIP II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새로이 56억 달러 규모의 도로망 개선사업(Link 8000, 2012~16년)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계속되는 전력 수요 확대와 정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까지 전력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전력 인프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잠비아는 Kafu Gorge, Kariba North Bank 및 Victoria Falls 3개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재활사업(PRPP)을 시행하여 이들 발전소의 발전가능 전력량을 확대하였음. 아울러 추가로 2013년까지 Kariba North Bank 발전소 360MW 생산증축사업, 2017년까지 Kafu Gorge 발전소 750MW 생산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Itezhi-Tezhi 수력발전소(120MW) 개발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수입 확대 추진

- 잠비아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세율 인상, 광산의 소득신고금액 관리 개선, 정부의 광산 지분 확대 등을 통해 광업 부문의 재정수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2011년 로열티를 3%에서 6%로 인상하였으며, 수익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한 바 있음. 2013년에는 광업권의 매매 및 양도에 대한 10%의 양도세 도입안을 발표하였음.
- 소득신고금액 관리를 개선하여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1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에 대해서 60일간 관련 소득금액을 잠비아의 상업은행에 예치시키고, 기간 내에 송금 사유를 증명할 경우 송금을 허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재 10~20%인 정부의 광산 지분을 35%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2012년 GDP 대비 18.7%를 기록한 세금 수입을 2015년에는 20.1%까지 확대하고자 함.

□ 정부의 시장개입 완화 여부는 불확실

- 현 정부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외국인 소유 범인의 국내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회사법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13년 들어 옥수수 가격 제한, 버스요금 관여, 임차료 상한 설정 등 일부 분야에서 시장개입이 심화됨.
- 한편, 정부는 2013년 5월 비료 보조금과 소규모 옥수수 농가에 대한 가격 보장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비인기성 정책도 도입하고 있음.
- 이 정책들은 잠비아의 옥수수 생산을 뒷받침해왔으나, 이로 인해 다른 작물에 적합한 토지에서도 옥수수를 생산하는 등 농민의 약 80%가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후 생산성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시장

개입으로 평가됨. 또한 관련 재정지출 및 옥수수 잉여 생산물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구리의 생산량이 확대되고 국제 구리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흑자를 지속하면서 2009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흑자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12년에는 광산 이익의 본국송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확대, 수입 증가에 따른 운임 지불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5.2%를 기록함. 2013년에는 수입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FDI 유입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광업 및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약 18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2012년 말에는 약 2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외채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과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규모가 2009년 38억 달러에서 2012년 4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5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외채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외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2년 말 기준 24.3%를 기록하였으며, D.S.R.도 4.2%로 양호한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240	915	69	-1,070	-1,768
경상수지 / GDP	1.9	5.6	0.4	-5.2	-7.7
상 품 수 지	906	2,704	2,218	1,230	636
수 출	4,319	7,414	8,672	8,590	8,692
수 입	3,413	4,710	6,454	7,361	8,056
외 환 보 유 액	1,758	1,896	2,167	2,885	2,451
총 외 채 잔 액	3,774	4,411	4,360	4,937	5,206
총외채잔액/GDP	29.5	27.2	22.7	24.3	23.2
D . S . R .	3.2	1.7	1.8	4.2	2.4

자료: IMF, EIU.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1991년 이후 안정적으로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운영

- 잠비아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카운다(Kaunda) 대통령의 일당 독재체제가 이어졌으며,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폭동 끝에 1991년 10월 헌법을 수정하고 야당과 총선거를 합법화하였음.
- 1992년 노동당의 칠루바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정권교체를 이룬 후 대통령 임기를 2차례 증임으로 한정하도록 개헌하여 카운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봉쇄하였음.
- 이후 현재까지 복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9월 치러진 총선 및 대선에서 애국전선(PF)과 동 정당 소속의 마이클 사타 대통령이 승리하여 2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마이클 사타(Michael Sata)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 약화

- 사타 정부가 내세운 실업 및 부패 감소 등 주요 공약의 결과가 부진한 데 더해 2013년 들어 연료, 비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옥수수 가격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인기성 정책을 발표하고, 야당에 대해 잇달아 적대적인 조치를 강행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
- 양대 야당의 대표가 여러 차례 체포 후 석방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의 잔재물로 사타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공공질서법을 적용해 야당이 주도하는 집회들을 금지시킨 바 있음. 또한 최대 야당인 MMD의 해산을 시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저지되었음.
- 국민의 지지 약화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정치적 제안을 통해 야당 의원을 포섭하여 의석을 늘리고 있으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6년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 심화가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

-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빈곤 감소로 연결 되지 못하여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광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에 따른 사회 불안 가중의 우려가 있음.
- 잠비아는 2011년 7월 World Bank 기준 중하위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상향 분류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6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42%는 극단적으로 빈곤한 상태임.
-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90% 이상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Poverty Gap Ratio(빈곤선 이하 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에 해당하는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음을 의미)가 농촌 지역은 20%, 도시 지역은 3.7%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뚜렷함.

- 절대적인 빈민층의 숫자가 1991년 600만 명에서 2010년 79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니계수도 2003년 42%에서 2010년 52%로 상승하여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UNDP가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실질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잠비아는 2013년 기준 187개 국가 중 163위를 차지하였음.

**□ 중국 광산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 고조**

- 2010년 킬림 광산에서 중국인 관리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는 광부들에게 발포하여 광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국인 현장 책임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광부들에게 피살되는 등 중국광업공사(CNMC) 소유의 광산에서 위험한 노동 여건과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유혈사태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마이클 사타 대통령은 대선 유세과정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여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았으나, 당선 후 실질적인 조치 없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7월 잠비아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 67% 인상하였으나, 중국 대사관측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 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같은 해 CNMC는 산업안전기준 위반으로 잇달아 벌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으며, 지속되는 광부들과의 충돌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됨.
- 이에 따라 2011년 CNMC 소유의 캄비시 광산은 임금인상 파업으로 해고했던 광부 1천여 명을 잠비아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상결과에 따라 재고용하기도 하였음.

**3. 국제관계**

**□ 중국 및 주변국과 양호한 협력관계 유지**

- 중국은 잠비아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류국이자 투자국으로,

양국은 광산 소유권, 노동자 처우 문제 등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사타 대통령이 7일간 중국을 친선 방문하는 등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잠비아는 아프리카 내 지역공동체인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SADC는 잠비아, 남아공, 탄자니아, 앙골라 등 1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로, 2018년까지 화폐통합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정치문제로 서방 원조국과의 관계에 갈등발생 가능**

- 잠비아는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에 미국, 영국이 주요 원조국으로 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타 대통령과 여당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현 사태가 심화될 경우 원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2005년 HIPC Initiative<sup>1)</sup> 완료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함에 따라 파리클럽은 잠비아의 공격채무 14.03억 달러를 탕감하고 양자간 합의를 통해 추가로 2005~07년간 도래한 채무의 50%를 리스케줄링한 바 있음. World Bank도 HIPC 및 MDRI<sup>2)</sup>에 따라 잠비아에 대해 총 27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였음.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 (2013년 3월 말 기준)**

1) 고채무저소득국 채무구제(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Initiative)는 저소득국의 과중한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채무완화 방식(세계은행, IMF의 양허성차관과 파리클럽에 의한 리스케줄링)보다 외채경감 폭이 확대됨(67% → 80%).

2) 다자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는 세계은행의 IDA와 IMF, AfDB, IADB 등 4개의 기구가 HIPC Initiative상의 완료점에 도달한 국가에게 채무 잔액을 전액 탕감해주는 채무구제의 최종단계임.

□ OECD 회원국 ECA의 대 잠비아 지원현황(OECD, 2013년 3월 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1,94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 지원잔액 2,81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13년 6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2012년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한 점, 유류보조금 철폐로 재정수지 악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이유로 잠비아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5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S&P와 Fitch는 2011년, Moody's는 2012년에 최초로 잠비아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국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안정적인 선거제도 운영 등의 장점과 광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국제 구리 시세 변동에 취약하고 정부의 경제개입으로 투자환경이 불안정한 약점을 반영하여 B+/B1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3. 6.)	6등급 (2012. 10.)
S&P	B+ (2013. 5.)	B+ (2012. 9.)
Moody's	B1 (2013. 5.)	B1 (2012. 11.)
Fitch	B+ (2013. 2.)	B+ (2012. 3.)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중·단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제한적 중기 인수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9. 4 (북한과는 1969. 4. 12)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잠비아 간 2011년 교역규모 5억 2,604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3억 6,708만 달러로 다소 감소(수출 3,049만 달러, 수입 3억 3,660만 달러)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기타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제품과 기호식품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6건, 545천 달러

<표 4>

한·잠비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3,145	25,341	30,485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기타석유화학제품
수 입	376,704	500,701	336,603	동제품, 기호식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잠비아는 주요 수출품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2011년 7월 중하위소득국(LMIC)으로 분류되었으며, 2013년에도 구리생산 증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7%대 후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광업 중심의 성장으로 고용창출이 미진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여전히 인구의 6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하고 있으며 광업 중심, 도시 중심의 성장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높고, 광산 지역에서는 광산회사와 노동자간 갈등이 지속되는 점이 사회 불안 요소임.

- 2011년 집권한 사타 대통령과 PF는 공약 실천 미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고 있으나, 의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 대선 및 총선까지 정치적 안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 비중과 D.S.R 등 관련 지표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및 FDI 유입 증가세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